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여호수아기 5:9. 10-12 | 제2독서 | 코린도2서 5:17-21 | 복음 | 루카 15:1-3, 11-32

◎ 말씀 <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

오늘 복음은 신약성경에서 흔히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 등으로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잃은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중심임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가복음 15장에 여러 비유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비유의 전반부는 작은아들에 대한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청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몫을 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듯이 챙긴 그는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끝없는 기다림으로 대신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의 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방탕생활을 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 비이성적이고 비계산적인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라 작은 아들은 물론 큰 아들도 회개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귀향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참회해서가 아닙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은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무기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를 성숙한 아들로 대우해 주면서 그를 믿었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마음까지 돌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착한 아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착하지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귀향했을 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비계산적인 순수한 사랑과 마주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아들도 정화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회개하여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에 동참해야 할 공통과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이 사순시기에 하느님 아버지의 그 순수한 사랑에 따라 회개하고 정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구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순수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4월2일(화)	사순 제4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180.00 \$ 1,096.00
4월3일(수)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300.00 \$ 204.00
4월4일(목)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176.00 \$ 111.00
4월5일(금)	사순 제4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1,000.00 \$ 0.00
4월6일(토)	사순 제4주간 토요일	오전10시30분 (성모신심미사)	합 계	\$ 5,067.00
4월7일(일)	사순 제5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2명 성인: 177명
교무금 봉헌자	김형일(1-12월)최응철. 류승교(3-4월)서희석(1-2월)장현철. 송민자. 김평옥. 김승제. 임상일(3월) 김은영. 남필레(4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화장한 유골 강이나 바다에 뿌려도 되나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는 행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라도 한번 즈음은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산골이라고 합니다. 산골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가톨릭교회는 산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골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도 기념물이나 장신구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톨릭교회의 부활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죽음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부활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육신은 다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 변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장례는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인간 육신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을 인간의 완전한 소멸로 여기는 태도와 예식을 금지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유골을 뿌림으로써 죽은이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 현신부(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영성실장)는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세상을 초월한 분입니다. 죽은 이를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또 가톨릭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세상을 가치없게 여기는 허무주의적 표현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일부 허무주의가 가운데에는 도덕이나 진리같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 하느님까지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한편 나무나 화초 잔디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고 비석등을 세우는 자연장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하는것만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나무주위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봉한기간이 지난 유골이라고 해서 산골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교회의는 유골의 봉한기간이 지났을 경우 공원묘지 등 별도공동 안치소를 마련해 매장 형태로 영구 봉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교회의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산골을 한 경우에는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김광진.요한 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박원상.토마스	연	이강덕.시몬의 영혼	황아바
연	김광진.요한의 영혼	연령희	연	이춘실.마르코의 영혼	임채봉.안드레아
연	이영실.카타리나의 영혼	이세일.알렉산더	연	김옥자.마리아 막달레나의 영혼	임정남.실비아
연	이강덕.시몬의 영혼	이나숙.테레사			

간
장
중
지

◎정원◎
시각장애인학교의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까?”
“흔히 우리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정원은 우리가 보고있는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입니다 어떨습니까?”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p> <p>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